

신대해축구단, KCFA 제6기회장기대회 우승



중국동포축구연합회(회장 이상철)는 지난9일, 안양천영동기갑대 구장에서 제6기회장기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6월 2일, 13개 팀이 소조순환 경기를 벌여 8강이 탄생하였다. 8강에 진입한 축구단들로는 드래곤즈축구단, 리우INB축구단, 언비턴축구단, 유학생축구단, 신대해축구단, 천산축구단, 한나축구단, 한마음축구단 등 8개이다.

9일, 8강 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최종 결승전에서 신대해축구단(단장 박인택)이 우승을 차지하고 한마음축구단(단장 신동철)이 준우승, 드래곤즈축구단(단장 홍종택)과 언비턴축구단(단장 김경수)이 각각 3, 4위를 차지하였다.

신대해축구단은 창단 이래 연속 3회 회장기대회 우승의 영광을 누리게 된 팀으로 근거지는 안산에 두고 있으며 20, 30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KC리그 2013" 에서도 우승을 노려볼만한 실력이 강한 축구단중의 하나이다.

/곽용호

학생작문

나누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영안시 조선족중학교 고중 1학년 1반 황정우

여름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오니 부모님께서는 초중 졸업 선물이라면서 최신 스마트폰을 깜짝 선물로 내놓았다. 전부터 스마트폰의 신기한 기능들에 마음이 끌렸지만 가격이 비싸서 생각뿐이었는데 갑자기 깜짝 선물로 받고나니 그 기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여름방학 내내 스마트폰의 신기한 기능들을 체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중국에 돌아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현재 중국에 돌아오니 외할아버지께서 나의 성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나의 스마트폰사용을 동의하지 않으실 줄이야. 하지만 그때 난 이미 스마트폰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때라 누구도 몰래 나의 용돈에서 요금을 내가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의 용돈을 내기에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러 가지 게임을 다운하면서 데이터 랑을 고려하지 않고 되는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다보니 지갑에서 용돈이 물나가듯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스마트폰이 정지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때는 빈 지갑이었다.

그때도 게임중독에 인이 박힌 나였던지라 이미 다운받아놓았던 게임을 계속하여 놀기 시작하였는데 어느 날인가 수업시간에 정신없이 놀다가 결국 선생님한테 물수당하고야 말았다.

스마트폰이 나의 손에서 사라지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딘가 후련하기도 하였다. 항상 손에서 떠날 줄 모르던 것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불안해났고 또 스마트폰이 손에서 사라지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 차라리 후련해났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선생님이 고맙기까지 하였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 웹사이트방문, 미디어파일다운 등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생활에 많은 편리를 줄 수 있다. 나는 바로 이런 스마트폰의 매력에 푹 빠져 그것의 위해성은 미처 고려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스마트폰의 인터넷은 사용요금에 필요한데 소비자인 학생의 용돈으로는 힘들다는 점도 고려해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인터넷기능을 이용하여 많은 게임, 소설 등을 접속할 수 있는데 자제력이 결핍하면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며 중독에 빠져버리면 스스로를 해친다는 것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이로온 점과 위해성을 다 고려했다라면 스마트폰사용을 좀 더 잘했을 것이며 또 정확도 있었을 것이다.

스마트폰사용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로 나누어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며 항상 먼저 돌로 나누어 본 다음 행동에 옮기다 보면 후회는 적을 것이라는 도리를 깨치게 되었다.

이제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이로온 점을 살려 위해성을 미봉하려 한다.

/지도교원: 남영선

한국의 전통 결혼 문화

궁합은 한국인의 독특한 삶의 기술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전통사회로부터 계승된 몇 가지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친다. 두 남녀는 결혼 전 두 사람의 결혼이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아시아의 오래된 과학인 명리학(korean horoscope)에 조언을 구한다.

두 사람이 탄생 시점에 하늘과 땅으로부터 부여 받은 특정한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궁합(宮合)이라고 한다.

궁합은 특정한 시점의 기운이 담겨 있다는 의미의 궁(house)이 서로 조화롭게 합치(合, coincidence)하는가를 보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삶의 기술(art)이다. 전근대적인 미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의 궁합이 좋지 않아서 파혼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궁합이 좋지 않다'는 말은 반드시

▲ 한국 사람들에게 결혼은 남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일원을 받아들여서 조화를 달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생의 의례이다.<제공: 유승주>

명리학의 조언을 따라서 내리는 판단만은 아니다. 이는 결혼을 할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적합한 조건을 갖지 못했을 때, 결혼 이야기가 오간 상대의

집이 모멸스러운 감정을 갖지 않고 체면을 유지하도록 해줄기 위해, 예의를 갖추어 결혼을 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내 결혼식날 친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혼식 친구역할 1위, '친구야 고맙다'



게 사회를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웨딩가 꾸미기 및 운전'(113명/29.8%), '감동스런 축가'(56명/15%), '축의금 접수'(47명/1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들은 '감동스런 축가'(156명/40.1%)를 1위로 꼽았다.

여성회원 김모씨(29·여)는 "여자들의 마음 속에 결혼식에서 축가로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며 "특히 요즘은 친

구들이 신랑신부를 위해 재미있는 이벤트 축가를 부르는 것이 유행으로 축가를 결혼식의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로 남기고 싶다"고 답했다.

뒤 이어 '부케 받기'(135명/34.7%), '축의금 접수'(54명/13.9%), '재치있는 결혼식 사회'(45명/11.3%) 순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업체 수현의 김라현 본부장은 "엄숙하고 성스러운 분위기의 과거 결혼식과는 달리 요즘결혼식은 형식이 엄매이지 않고 가족, 친구들과 즐겁게 즐기는 하나의 축제로 치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본래의 신성한 결혼식의 의미는 간직하되 즐거운 이벤트와 함께 인생의 한번뿐인 소중한 결혼식을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수현

다 읽고난 신문은 버리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 봅시다.

프리미엄 디젤 세단의 시대를 열다



컴팩트하고 강력한 심장
탁월한 연비와 정숙성까지

가솔린 2.0 GDi 엔진
178ps 13.1km/ℓ

디젤 1.7 VGT 엔진
140ps 18.0km/ℓ

세련된 스타일과 다이내믹한 핸들링을 특징으로 하는 신개념 중형 세단으로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디젤 모델을 보유, 고유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승용 디젤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모델



HYUNDAI

The European Premium i40 출시

i40
SALON